

기고

조 래 철 순천대학교 교수·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 등이 지난 12월 17일부터 예비후 보자등록과 함께 시작되었다. 문 자 메시지나 명함을 배포하고 출 퇴근 시간에는 큰 사거리에서 간 판을 든 후보들이 인사를 하며 지 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정도의 선거운동은 지역민 들에게 큰 불편함이 없으나 후보 자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철이 되 면 스피커를 통한 고성방가 수준 의 소음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이번에는 조용하게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다.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 서는 후보자들은 지역민들의 의 견을 접수하여 활발하게 논쟁하

고 연구하여 진정성이 담겨 있는 정책과 선거 공약,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 등을 기반으로 선거운 동을 해야 한다. 선거철에만 반짝 하고 나와서 당선되고 나면 개인 의 명예나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 는 선거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 서는 안 된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 의원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4.16.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 민을 위한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동시에 선거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 치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 하고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

다. 흑인 투표권 쟁취에 관한 영화 '셀마'는 기득권의 방해와 좌절, 희생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얻 기 위한 투쟁 속에서 한 표 한 표 투표의 소중함을 잘 대변하고 있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 르면 우리나라 2020년 예산을 기 준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4년 동 안 운영할 재정 규모는 2,049조 2 천억 원으로 유권자 한 명의 투 표 가치가 약 4,7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러나 투표 의 가치는 돈으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 래를 더욱더 값지게 하는 힘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우

리는 투표를 통하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표자를 결정하고, 그 대표자는 지역사회, 국가 발전 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민 주정치의 원칙인 다수결을 통해 선출된 대표자는 우리의 의견을 모아 사회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 기 때문이다.

선거인에 의한 투표의 권리와 책임은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을 열어가기 위한 필수적 선택임 과 동시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교 육, 환경, 취업, 민생 등 현실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이다.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과 참여, 그리고 실천으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갔 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우리의 건강 은 물론 시장경제도 적지 않은 타 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도 정치권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와 정당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우리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社 說

상무소각장 도서관에 거는 기대

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을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된 국제설계공모의 당선작 이 결정됐다. 이번 공모에 출품 된 국내의 134개 작품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세르 비아의 브라니슬라프 레딕의 작 품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레 딕의 작품은 지표면 아래의 공 간과 소각장을 연결하는 브리지 를 다양한 기능을 담은 독특한 공간으로 제시하고, 주변 공간 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뚜렷 한 수평적 랜드마크를 형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를 대표하는 세계적 도서 관은 오는 2022년이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동안 주민들의 폐쇄 요구가 끊이지 않았으며, 결국 지난 2016년 12월 가동을 중단한 상무소각장이 지역민의 문화 발전을 이끌 동력으로 재 탄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 다. 도서관은 국비 156억8천만 원과 시비 235억2천만 원 등 총 392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1천 m²,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 어진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실 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

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애초 군부대가 주둔했던 곳을 도시로 개발하면서 폐기물처리 시설로 만들어진 상무소각장은 인근 주민들의 폐쇄 요구로 몸살을 앓다가 결국 2016년 문을 닫았다. 이후 광주시는 2년여간 전문가, 시의회, 현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문화 재생사업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적정성 평가와 승인, 행정안전부의 투 자 심사 등을 거쳤으며, 한국건 축가협회와 관리용역 대행사로 선정하고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했다.

상무소각장은 그동안 분쟁과 갈등의 상전이었지만 지역민들 과의 합의를 거쳐 대표 도서관 으로 건립되는 의미있는 과정을 밟고 있다. 상무소각장이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5 년여 만에 광주를 상징할 대표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은 지역민과 행정당국이 힘을 합친 결과다. 광주시의 의도대 로 IT와 AI 등 첨단기술이 융 합된 우리 지역에서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업장 등에서 화재예방법

최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신 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요즘은 건조하고 화기취급이 많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때이다. 특히, 건축 공사장이나 작업장 등에서 부적절한 공사운 영과 작업자 과실로 인한 화재 사고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15~'19) 공사장 등에서 용접·절단·연마 중 26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2명, 부상자 15명이 발생하였 고 해마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 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용 접·용단작업시의 불꽃이 가연 물이나 인화성액체 등에 착화발 화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화재예방

에 대한 정보·기술 및 사업 주·근로자의 안전관리 인식 부 족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화재 예방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 나 사전조치(가연물 제거 등)를 이행하지 않는 등이다.

공장 및 작업장 등에서 화재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용 단 작업시에는 인근에 소화기 등을 근접 배치하고 불티가 인 근 가연물이나 위험물 등에 튀 지 않도록 가연물 제거조치 등 으로 주의하며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 종업원들 의 흡연 장소를 안전한 곳에 설 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 록 하자.

또한, 위험작업은 사전허가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작업을 개 시하며 화재발생우려가 높은 장소 는 '화기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 김양기 / 보성119안전센터장

밀려난 삶의 공간, 고물상

최근 우리 경제에서 가장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양극화라는 문제로 한국경제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나 사전조치(가연물 제거 등)를 이행하지 않는 등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진 자와 가지 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가 갈수 록 벌어지는 동시에 굳어가고 있다. 양극화의 거대한 흐름에 밀려 사다리에서 미끄러진 이들 은 배제된 공간에 동지를 둔다. 공간은 남루한 물건과 인생이 모여있는 곳 고물상이다. 고물은 쓸쓸함이며 버려짐이다. 태어날 때부터 고물이었을까?

한때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 랑을 받았을 밥그릇과 물병, 세 월을 못 이겨 쓰다 보니 낡고 불 필요해서 고물이 되었을 뿐이

다. 고물상은 그래서 식어버린 열정의 집합소다.

고물은 고물상으로 실어 나르 는 인생도 고물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물은 곱셈의 예 술이다. 고물에도 등급이 있다. 없는 자들의 전쟁, 마지막 재활 용이며 인생의 힘든 삶을 내포 한 장소이다.

없는 자들의 전쟁은 반대 영 역에서도 펼쳐진다. 폐지를 주 위 고물상에 팔기 전까지 임대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쌓아놓으 려는 노인들과, 지저분하니 이를 치우라는 다른 주민들과의 숨바꼭 질도 숨 가쁘게 펼쳐진다.

어찌 보면 사회에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의 양면성을 보여준 현실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건지, 아님 우리 삶이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지, 국종균 / 광주북부소방서 지휘담당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8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로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 쇠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